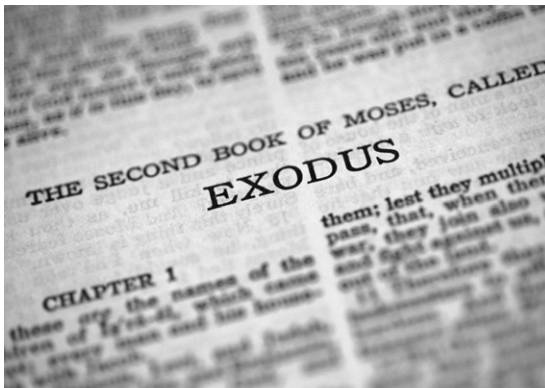


모세를 바라보는 두 시선

김성현 | 한길교회 목사, 호서대학교에서 “성서와 꾸란의 공통인물 비교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모세의 출생에 대한 기록은 구약성서(출 2:1-10)와 꾸란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가

장 큰 차이는 구약성서가 모세를 바로의 딸이 키우는 것과 달리 꾸란은 바로의 아내가 아들로 삼자고 한다는 점이다. 또한 구약성서는 아기의 준수한 모습 때문에 석달을 숨겨 키웠다고 밝히지만 꾸란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꾸란은 모세의 출생시부터 애굽의 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꾸란 20:39).

구약성서와 꾸란은 모세가 장성한 후 애굽인을 살해하고 미디안으로 도피하는 내용을 공통으로 보여주고 있으나, 이 역시 다른 점이 발견된다. 꾸란에는 싸우고 있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여 모세가 상대방을 주먹으로 쳐서 살해하였는데 이는 사탄의 유혹 때문이라고 한다(꾸란 28:15). 미디안으로 도피하게 된 이유도 성서에서는 바로가 죽이려(출 2:15) 찾기에 그런 것이었으나, 꾸란에서는 족장들이 모세를 살해하려 공모하기

때문(꾸란 28:20)인 것으로 나온다. 미디안에서 르우엘의 딸을 만나고 결국 일을 하게 되는 부분(출 2:16-22)도 공통적인데 꾸란에는 모세를 고용한 것이 딸들의 요청 때문(꾸란 28:26)이었으며 8년간 일해줄 것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딸을 주기로 하는(꾸란 28:27) 내용이 나온다. 여기서 '8년'은 야곱 이야기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구약성서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는 장면이 길게 나온다(출 3:1-12). 꾸란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역시 차이를 나타낸다. 구약성서에서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데 반해 꾸란에서는 '축복받은 나무가 있는 그 계곡'으로부터 소리가 들려왔다고 하고, 구약성서에는 호렙산에서의 일이지만 꾸란에는 두르산이라고 한다. 구약성서 소명받는 장면에서는 아론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고 이후 동역자로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아론을 동역자로 주시지만(출 4:14) 꾸란에는 모세의 요청에 따라 아론이 원조자가 된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온다. 모세는 바로에게 히브리 백성을 내보내 줄 것을 요구하지만 바로는 이를 거부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5-14장에 나온다. 꾸란에도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가 바로를 만나 대결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 분량은 아주 적다. 꾸란에서는 하만을 바로의 군대장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꾸란 28:6, 38). 유대인의 적수라는 공통점을 갖긴 하지만 시대를 다르게 나타낸 경우에 속한다.

히브리 백성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모세의 요청에 번번이 거부의를 밝히던 바로의 애굽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한다. 성서에서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열 가지 재앙(출 7:14-11:10)으로 나타나는 반면, 꾸란에는 가뭄, 역병, 메뚜기, 나방, 개

구리, 피 여섯 가지 재앙으로 나타난다(꾸란 7:130, 133). 홍해에서 구약성서가 각각 재앙의 과정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과 달리 꾸란은 한두 절에 묶어서 거론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구약성서는 열 가지 재앙 이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길을 떠나게 하시고 추격하는 바로의 군사들을 홍해에서 물리치는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한 꾸란의 언급은 꾸란 20:77-88로 출애굽기의 내용을 요약하는 형태일 뿐이다. 꾸란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다.'는 추격의 이유도 나오지 않고,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보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도 없으며, 백성들의 불평도 나오지 않는다. 구약성서는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라는 형식을 통하여 다시 한 번 홍해를 건너는 내용을 언급하지만 꾸란에는 없는 부분이다. 꾸란은 바로의 군대가 익사한 내용을 별도의 재앙으로 표현하며(꾸란 7:136)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것'과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시내산에 도착한 후 모세에게 계명을 주는 사건은 출애굽기 19-20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반면 꾸란에는 하나님이 '시나이산 우편'에서 모세를 불렀고(꾸란 19:52) 안식일을 위반하지 말라는 성약을 하였다(꾸란 4:154)는 사실에 대한 언급만 있다. 성서에서 십계명(출 20:1-17, 신 5:1-21)에 대한 설명이 길게 나오며 계약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같은 인물을 그리더라도 이렇게 요약 및 부분 인용에 그친 꾸란의 내용은 다른 인물들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본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전언 또는 전승을 취사선택하여 기록하고 자신들의 의도에 맞는 부분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 삼